

# 탄 원 서

탄원인 : 곽 춘 규

꼭 읽어주시길 바라며

선행학습과같은 사교육 문제에 힘을

통일대박 보난자

아름다움과 지혜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박근혜대통령님을 보면서 나날이 좋아지는 국정기조와 개혁 드라이브에 성원과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늘 바라보기만 하며 망설이던 차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았고 그에 힘입어 이렇게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억울함과 고통스런 사건에 대하여 다시금 용기를 내어 탄원을 올려 드립니다.

두 정부가 지나는 동안 저의 삶은 생활과 사업은 물론 심지어 저의 사고까지 스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이 스캔 되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사업이 스캔 되는 것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회계감사)

그러나 이성과 감성 즉 사고가 스캔 되는 일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종교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스캔 되어 펼쳐지는 것 만큼 부당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난리 친 사람들은 사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나마나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으니 온 나라를 흔들어 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정부가 지나가는 동안 정말 발가벗겨 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부분과 외부에서 보기 힘든 내재적인 가치와 그에 더하여 마음 속까지 보여질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박대통령님의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험난하고 위급한 상황이 꼬리를 물고 국내외 정세가 폭풍같이 휘몰아칠 때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박대통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처지를 생각하며 실소를 머금은 적이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오나 만약, 박대통령님과 제가 다른 것이 있다면

첫째, 대통령과 일반국민이라는 것과

둘째, 너남이라는 차이와

셋째, 법조인을 신뢰하시는 것과 불신하는 것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며 잠시나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10 년에 걸친 두 사건을 수 페이지 걸쳐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 탄원인 곽춘규의 사건 --- 2002.8 발생

2. 사륜 오토바이 사건 : 탄원인의 아버지 사건 --- 2006.4 발생

각 사건을 따로 설명 드리지 않고 왜 해결될 수 없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두 사건의 필연적 인과관계로 설명 드립니다.

(각 사건은 증거서류 1 과 2 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001 년부터 본격적으로 비린 냄새가 나는 오존공기청정기의 폐해를 알리고 나자 참여정부의 4 개 기관(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환경부)은 오존 공기청정기의 치명적인 대국민 피해를 은폐하는데 급급하였고, 판검사 십여 명은 손바닥 앞뒤보다도 더 명백한 사건의 진실을 집요하게 왜곡하고 심지어 엉터리 자료로 방해를 하며 5 년 간이나 재판을 끌었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저에게 죄를 씌워 벌을 주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형사적으로 벌을 주는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민사로 저의 재산을 빼앗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못한 짓을 제 아비에게 하였고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여 갔습니다.

...(중략)

비릿한 냄새가 나는 오존 공기청정기에 의한 국민들의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00 년 경부터 오존 공기청정기 캠페인의 진실 여부와 폐해에 대한 조사를 소비자보호원에 요구하였고, 2002 년 8 월 주식회사 00 의 고소로 사건화되자 무죄의 정당함과 재판과정의 부당함을 국민 앞에 호소하였고 고통의 시간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추적 60분에 방송이 되었고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 이들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정확히 4개월 후에)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건이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발생합니다.

(2006년 1월 kbs 추적 60분 방송 1달 후에 국민의 치명적 피해를 만 5년간이나 숨겨오던 소비자보호원은 많은 국민이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국민 경고를 방송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인 2006년 4월에 아버지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지만,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이후에 또 다시 5년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재판 중에 발생하고, 재판장은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소송지휘를 겁 없이 진행하였고 그 결과 그대로 불법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집요하고 막가파 식으로 불법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대통령의 민원 지휘까지 안하무인으로 취급하고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그 검사는 범행이 발각되자

미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갔지만 사실은 도망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과 법원내의 불법적인 사조직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을 10년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불법사조직의 판결테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 아들인 저를 감방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4개월 만에 아버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온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도 막가파로 5년간이나 민,형사재판을 원님재판 하듯이 했고, 뜻대로 안되자(추적 60분을 통하여 온 국민이 알게 되고 5년간이나 숨겨오던 해당 관계기관인 소비자보호원과 환경부에서 대국민 경고를 방송하게 되자 더 이상 물고 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교통사고 사건을 일으켰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 국민적인 공기청정기 사건도 막가파로 재판했는데, 한 개인의 과실 사건은 얼마나 더 기막히게 진행했는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행태와 불법적인 재판을 꺼리낌 없이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통사고 사건 자체도 고의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들의 수사지휘와 소송지휘, 공판조서, 변론조서 등 재판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황당무계한 소송 지휘와 심결에 대하여 2008년에는 박대통령님께서 한나라당 총재로 계실 때도 직접 탄원을 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 지도급 인사분들께 이런 막가파식 판결테러에 대하여 억울함을 수년에 걸쳐 호소하였습니다. (증거목록 1 :고소장입니다.---한상대검찰총장께 올린 신고글 )

조상전답을 빼앗기고 억울함에 하루 하루를 소태를 씹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박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에 힘입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억울한 피해와 범죄자들에 대한 신고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한 불법 사조직 판검사들에 대하여 전 검찰총장이신 한상대총장께서 직무 중일 때 신고를 하였고

사건의 중차함에 따라 중수부에 배당이 되었는데, 한달 후 원래 영월 검찰청으로 이송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는 검찰청이 바로 영월검찰청이고

이 검사들은 누구도 불법사조직의 청탁에서 오히려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후에 또 다시 증거불충분이라는 핑계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고한 법원 내 불법사조직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는 한상대총장께서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신고 글에서 분명하고 정신차리시라고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하였거든요

"아직 신에게 열 두척의 배가 있사오니 ...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건에 매달리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건이 기각 종결되고 몇 달 안 가서 한상대총장께서는 직접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게 됩니다. 부하들에게 견장을 뜯기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이들의 반격을 저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불법 사조직은 훨씬 더 옹크렸고 겁을 먹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대법관까지 연루되었으니 이들의 행로가 참으로 급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수법, 그대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는 증거 인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상대총장 사건입니다.

이에 더하여 자신들의 범행 (거약)을 수사할 주체가 남아있는 것도 이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중수부 폐지 (물론 대통령님의 공약이었지만 이들의 최소한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그렇게 쉽게 해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면 중수부를 폐지할 수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수사할 기관을 남겨둘 수 없었기에 아마도 못이기는 척하며 동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저의 소설이라고 하시겠기에 하나 더 증거를 말씀 드립니다.

2013년 중순에 갑자기 연합뉴스에 우리법연구회가 와해되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조직입니까 이들이 사조직을 해체하란다고 순순히 해체할 조직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결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체될 성질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 이 당시에 언론에서도 법원의 사조직에 대하여 나쁜 여론이 형성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와해되었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도마뱀이 꼬리를 찢는 수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와해되지 않았고 와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불법사조직의 범행이 탄로나서 치명적인 피해를 미리 막아보자는 통일전선 전술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날강도 판검사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온 나라와 국민을 흔들고 위태롭게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 이들에게 나라와 국민은 늘 눈 밖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사익과 자기수족들 부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은폐한 판검사의 불법 사조직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저의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한 사건이 바로

<봉평 사륜 오토바이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가 법원의 조서와 검찰의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기막힌 일을 당하여 여러 번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불법 사조직의 악행을 단죄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풀었지만, 진실은 한상대총장께 올린 신고 글에 아버지 사건의 모든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이 신고 글에는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과의 연계 없이 아버지 교통사고 사건으로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필요이상 사건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또 사건을 분리하여 속히 빼앗긴 땅과 재산을 찾아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단견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왜 이렇게 무리한 방법까지 쓰면서 불법한 짓을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완전범죄로 숨기고 그 피해의 기막힌 진실을 알고 있는 저와 제 가정을 파괴하여 영원히 은폐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바로 저의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의 연장선에서 아버지의 <봉평 사륜 오토바이 사건>을 재조명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서류 2: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자 159 명의 손해배상도 아닌 위자료 청구 소송조차도 불법적 방법으로 영구 은폐하려 한 대법관)

이 두 권의 증거 서류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국민의 피해를 은폐하였고, 또 개인의 재산을 약탈했는지 눈으로 보듯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형벌과 재산권의 다툼 같지만 사실은 대국민 피해에 대한 지난 참여정부의 범죄와 부패 사법부의 불법적 면죄, 그리고 영구히 완전범죄를 만들기 위하여 한 개인과 가정을 초토화하고 그 재산을 약탈했다는 것이 그 요점인 것입니다.

특히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왜곡과 혼란이 일어났고 , 그것은 국가와 사회 전역에 더욱 커다란 악영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0 년이 지난 현 정부에까지도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하였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 가슴기 사건은 새민련의 장하나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법안 발의를 이끌었고 결국 정부에서는 편법으로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게 되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의 아주 젊은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당내의 속사정이 있는 일들에 나서게 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건들을 재조명 하시게 되면

이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폐약을 끼쳤고 정치 경제와 국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듣고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분열시키려 하고 어지럽히려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배후에 이 사건들의 주범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재조명 하시면 국정운영에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만큼 이 사건에 집요하게 달라붙어 왔고 또 지금도 은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당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는 그들을 볼 때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혜로우신 헤안으로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하셔서 계획하신 목표들을 방해 없이 잘 이루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첫째, 부모님의 땅과 재산을 찾게 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와 실체가 법원의 조서와 증거로 남아있기에 범죄자들을 즉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10년간 저의 집과 사무실 매장을 감시해온 사람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정부가 지나갔습니다.

모두 잡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범행에 대하여 누군가는 처벌되고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매장과 사무실에서 거의 업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모니터 해킹과 도감청을 통하여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보란 듯이 매장의 앞, 옆, 위층 등 제 사무실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감청 도청 해킹을 해왔습니다. 수년 동안의 증거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 자체를 안 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사법변혁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선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들의 역풍을 맞아 국정기조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 내놓았다가 5년 내내 검찰과 법원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을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다만, 법과 질서가 실정법 아래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기강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증거를 보고도 수사를 못한다고 내놓고 쫓아 내었고 정식 고소를 하면 피의자들을 한 번 부르지도 않고 종결시키지요.

판검사와 증거로 십여 년을 다룬 사람이 증거 없이 고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소는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이제까지 3번 정도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단 한번도 기소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사건을 거치면서 인생의 꿈과 소망이 모두 바뀌고 이제 진리와 사법변혁에 모든 삶의 소망을 두며 살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시는 동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다시금 기원드리며 개혁 국정드라이브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2014. 3 .      광춘규 올림

증거목록 1 :고소장입니다.---한상대검찰총장께 올린 신고글

박근혜 대통령님께 올린 탄원서 2 가 곧 공개됩니다. 2023.11.

기대하세요승리

승리영광!!!